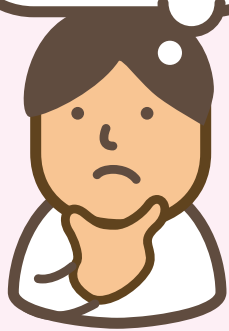


인권 퀴즈



섹슈얼 마이너리티(성적소수자) 사람들을 'LGBT'라는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LGBT를 자인하는 사람의 비율은 일본인 중에 왼손잡이인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과 거의 같다고 합니다. LGBT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일까요? 다음 중에서 1개를 골라 주십시오.

L(레즈비언).....여성의 동성애자

G(게이).....남성의 동성애자

B(바이섹슈얼).....남성, 여성의 이성애자

T(트랜스젠더).....성동일성 장애를 포함해 몸과 마음의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차별은 하지 말자·시키지 말자·용납하지 말자

~인권존중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일본국 헌법에서는, 제11조에 있어서, '기본적 인권은, 침범할 수 없는 영원한 권리'임을 규정한 위에, 제13조에서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 존중을 주장하여, 제14조에서는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벌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되지 않는다'라고 '법 아래 평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카이시는 1980년(쇼와 55년)에 세계인권선언 및 일본국 헌법이 이념으로 하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평화사회의 실현을 위해 '인권옹호도시'를 선언하고, 2007년(헤이세이 19년)에는 행정과 시민이 일체가 되어 국제평화의 실현과 유지 및 인권 과제의 해결을 위해 세계를 향해 행동하고 발신하는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하여 '사카이시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도시조성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작년 8월에 사카이시 내의 한 상업시설 주차장에서 도우와(同和) 지구 주민, 재일 외국인, 신체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고 지적·고발하는 내용의 엽서가 사카이시의 공공시설 앞으로 우송되어 왔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사카이시의 시설에서 열린 이벤트 중에서 시민이 메시지를 적어 게시판에 붙이는 코너에 도우와(同和) 지구 주민, 재일 외국인을 차별적 용어로 비방중상하는 메시지가 붙여진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차별 행위에 대해 우리는 '차별은 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열한 행위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인식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권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사고방식을 습득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별 사건에 접했을 때 자신과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피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의 실현으로 이어집니다.

해답 B

B(바이섹슈얼) 양성애자라고 합니다.

LGBT에는 아직 사회적 편견이 있으며, 살아가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LGBT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여 누구나 인간으로서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2017.3.31 발행

마음의 소리

우리의 도시 사카이에서
인권 문화의 꽃을 피우자!

사카이시 인권협 소식 Vol.38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약칭:인권협)에서는 인권계발(啓發)의 일환으로서 시민 여러분에게 인권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하여 매년 '사카이시 인권협 소식 마음의 소리'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목 차

- 1~2 ... '나의 인권 메시지' 특선작품 소개
- 3 ... 어린이의 인권(학구 추진위원 연수회)
- 4 ... 전쟁터의 어린이들에게서 배운 점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의 최신 보고서~
(전체 연수회)
- 5 ... '아는 듯하면서도, 잘 모르는 나라, 몽골' 인터 유스 사카이 활동 보고
(인권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 6 ... 인권협이란?
- 7 ... 인권 퀴즈 등



편집·발행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사카이시 사카이구 미나미카와라마치 3-1 사카이시 인권추진과 내 TEL 072-228-7420 FAX 072-228-8070 URL <http://www.jinkenkyo.jp>



나의 인권 메시지

~특선작품 소개~



요시카와 유리 씨의 이야기를 듣고

초등학교 2학년

우리집은 가마무로 주재소입니다. 아버지는 주재소의 경찰관입니다.

주재소 건물에 요시카와 유리 씨의 포스터가 붙여져 있습니다. 13년 전의 4학년 때부터 행방불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밥을 먹거나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친구들과 놀기도 합니다.

요시카와 유리 씨는 학교에 가거나 가족과 함께 외출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도 매우 슬플 거로 생각합니다.

내가 요시카와 유리 씨의 포스터에 관해 물었을 때 아버지는 “모두에게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단다. 그 누구도 슬픈 일을 당하지 않는 세상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나도 친구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고, 모두가 웃는 얼굴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요시카와 유리 씨도 빨리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한테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의 인권

중학교 2학년

배리어프리화는 진척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주요 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큰 가게에는 반드시 휠체어 마크의 주차 공간이 입구 부근에 있다. 큰 시설이나 관광 명소에서는 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있으면 할인이 된다. 지금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더 외출하기 쉽게 되었다.

그런데 왜 나는 배리어프리라는 제목을 택했을까? 나는 이 작문을 쓰기 위해 다시 한번 배리어프리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았다. 배리어프리란 “고령자나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장벽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 현재는 사회 제도, 정보 제공, 사람들의 의식을 포함한 다양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나는 선천적인 뇌성마비로 손발이 불편하기 때문에 매일 전동 휠체어로 통학하고 있다. 지원학급 선생님과 친구들 덕분에 내가 희망하는 지역의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이다. 장애가 있는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 진정한 “배리어프리”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직도 약간 배리어프리가 되지 않은 곳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통학하기에는 건널목이 있는 길이 가깝지만, 그 건널목의 폭은 좁고, 통학 시간에는 사람과 차로 가득해 위험하기 때문에 우회해서 지하도를 지나고 있다. 역에 도착할 때까지의 도로에서도 보도와 차도 사이에 높낮이가 있고, 때로는 그 높낮이가 심한 곳도 있다. 역에서는 전철과 홈 사이가 넓어서 무서운 곳이 있다. 내가

지금까지 방문했던 시설이나 관광지에서는 길이 울퉁불퉁한 곳이 있어서, 보기에는 좋아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고령자에게는 이동하기가 어려운 곳도 있었다.

나와 같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배리어프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다.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하드웨어 측면의 배리어프리화는 진척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강하게 느끼는 것은 소프트웨어 측면인 ‘마음의 배리어프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가 휠체어를 타고 뭔가를 하면 주위에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나는 주변 사람들로 부터 주목을 받게 되고 눈에 띄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는 그런 주변의 시선이 견디기 힘들다. 더구나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노력해도, 주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은, 나도 할 수 있다고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얼굴을 들어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말하는 것, 순조롭게 의사소통을 하는 일 등.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걸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성격이나 정말 어려워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나라는 한 사람의 개성이다. 분명 나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도 똑같이 생각할 것이다.

‘마음의 배리어프리’란 편견을 없애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인정하는 주변의 따뜻한 시선이라고 생각한다.

동료와 노력

지원학교 고등부 2학년

나는 귀가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특별한 인간일까?

초등학교 때 축구부에 소속하고 있어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중학교 때도 축구부에 들어갔다. 막 들어갔을 때 다른 초등학교에서 올라온 동급생이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축구는 못 해”라며 일방적으로 말했다.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여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 까짓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주눅 들지 않고 매일매일 연습하러 갔다.

연습할 때 주장의 지시가 들리지 않아 상대방 마크를 하는 것을 모른 채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다가 골을 내주고 말았다. 주장으로부터 “너 뭐하는 거야! 마크하라고 했잖아!”라며 혼이 난 후에야 비로소 주장이 지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혼이 났을 때는 얼굴이 화끈해질 정도로 창피했지만, 이 경험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다. 그 일념으로 주위를 살피면서 플레이 하도록 신경썼다. 그런데도 지시를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어찌나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팀 동료가 “어이, ‘아’라는 소리는 손가락으로 어떻게 표시하니?”라고 물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라며 어리벙벙했는데 갑자기 기쁜

감정이 밀려왔다.

그렇게 하여 팀 동료가 나의 ‘귀’를 대신해 주었다. 귀가 들리지 않아도 축구를 할 수 있다!며 매일매일 연습에 참가해 팀 동료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노력하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운동장에 나가 연습했고, 흙투성이가 되어도 포기하지 않고 축구공과 팀 동료를 줄곧 쳐다보면서 연습에 매진했다. 열심히 연습한 결과 감독님으로부터 “너는 A팀으로 가라”라는 말을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B팀에서 “얏호!”라고 소리치고 말았다.

귀가 들리지 않아도 노력하면 반드시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 나는 레귤러가 되고 싶다는 작은 목표였지만, 그래도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기쁨은 그 무엇보다 컸다. 특별한 사람도 아니며, 그저 포기하지 않은 평범한 인간이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지금도 축구부에 소속하고 있다. 축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린이들에게 귀가 들리지 않아도 축구를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싶다. 벽에 부딪친 어린이들에게 축구를 통해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옛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

가정에서

성인

“애기 아빠, 정말 훌륭하시네요”

우리집은 맞벌이입니다. 엄마인 내가 맨 먼저 집을 나서고, 아침식사 설거지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일은 남편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 언제나 되돌아오는 말이 첫머리에 소개한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최근에 ‘여성의 활약’이 크게 강조되면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로 나가서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도 육아와 가사는 당연히 여성의 몫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인 엄마들조차도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이 도와주니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나도 2년 전까지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첫 아이 출산 때 아무런 의문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와 살림을 전부 떠맡았습니다. 직장에서 매일같이 막차를 타고 귀가하는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저에게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재취업의 조건도 남편에게 가사일을 부탁하지 않고 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범위로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아이의 육아에다가 가사일과 직장일을 해 오던 어느날 급성 현기증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가사일을 가르쳐 줘”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부탁하기 싫어했던 나도 조금씩 가사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와 같은 협조 체제가 정착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가사와 육아를 부부가 모두 담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가사일에는 힘이 필요한 일도

있고, 부부 두 사람의 보배인 아이를 엄마가 혼자 키우는 데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자녀의 성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 장시간 노동이 많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가사일을 부탁하고 싶어도 부탁하지 못하는 실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면 부부의 관계나 가족의 유대도 강해지지 않을까요?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출석번호가 남녀혼합으로 되어 있고, 가정과 수업에서는 남녀가 함께 된장국을 만들고 재봉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학생이 학년대표를 하는 것도 드물지 않고, 남녀의 역할을 한정시킨 교육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부에서 간호사로, 보모에서 보육사로 명칭이 바뀌면서 직업에서의 잠재적인 남녀차별도 해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이 보급되어 사회가 바뀌면서 아이들이 어른이 될 무렵에는 남녀 구별 없이 생활을 함께 하고, 좋아하는 일을 고를 수 있고, 활약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자라서, 여자니까, 엄마이기에라는 이유로 제약 받는 일 없이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인정받고, 누구나 빛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가정에서. 우리집에서는 딸에게도 아들에게도 가사일 역할 분담이 있고,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학구 추진위원 연수회에 대하여

매년 10월~11월에 사카이 시내 각 구마다 총 7번, 인권에 관한 연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구 추진위원 분들을 비롯하여, 많은 일반 시민 분들이 참가하십니다.

※**학구 추진위원**이란...인권협을 구성하는 일원입니다. 학구 추진위원은 학구 자치연합회 임원·단위 자치회장·학구내 각종 단체위원이나, 각 학구내에서 인권계발(啓發)을 위해 열렬한 의욕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사카ishi 자치연합 협의회 학구 대표자께서 추천을 해 주십니다.

어린이의 인권

2016년 10월 25일 니시(西) 문화회관, 11월 1일 히가시(東) 구청, 22일 미나미(南) 구청에서 ‘어린이 학대 방지~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제목으로 오사카 부립대학 이토 가요코(伊藤 嘉余子) 준교수가 강연해 주셨습니다.

육아 가정을 둘러싼 각종 현황과 과제, 일본의 아동학대 상담의 현황, 왜 학대가 발생하는지, 학대의 원인과 배경 등을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가정·가족을 고립시키지 않는 지역 조성, 도시 조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강연이었습니다.

어린이를 학대하는 사람 중에는 주변과의 관계가 없이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많고, 또한 부모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의 감소, 경제적 어려움,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이 얹혀 있으며, 현재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0년에 성립한 아동학대방지법에서 학대는 아이를 때리고 차는 등의 신체적 학대, 아이가 쾌적하게 지내면서 자라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 무관심, 언어 폭력에 의한 심리적 학대, 아이에게 성적인 위해를 가하는 성적 학대가 있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학대는 자녀의 심신과 행동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또 학대받은 아이는 인간을 불신하게 되어 비뚤어질 수 있습니다. 학대하는 사람 중에는 모친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만큼 육아 스트레스가 여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남성의 일하는 방식 재고와 육아 부부 사이에서 부친의 역할 재조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육아가 즐겁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 학대가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연이 고립된 사람들을 만들지 않기 위한 지역사회 조성, 인간 관계 조성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락(部落) 차별 해소 추진법이 성립되었습니다.

‘부락(部落)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2월 16일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부락(部落) 차별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표명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이념에 따라 부락(部落)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락(部落) 차별’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법안 이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법의 기본이념에 “국민의 이해를 심화시키도록 노력하여, 부락(部落) 차별이 없는 사회를 실현한다”라고 명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상담 체제의 강화 및 교육·계발활동을 요청했습니다.

또 국가가 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차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이 성립됨으로써 부락(部落) 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의 시책이 추진될 것입니다.

사카ishi 수화 언어 보급 및 장애인의 커뮤니케이션 수단 이용을 촉진하는 조례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헤이트 스피치, 용서하지 않는다

최근에 특정 민족이나 국적의 사람들을 배척하는 차별적 언동이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동은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혐오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차별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이 헤이트 스피치가 매스미디어나 인터넷 등에서 크게 보도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 6월 3일에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어떤 속성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헤이트 스피치가 허용되지 않음은 당연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본 조례는 수화를 언어로 자리매김하여 시민 등에 대해 수화에 대한 이해의 촉진과 보급을 도모함과 동시에 수화뿐만 아니라 음역, 요약 필기, 점자, 촉수화, 손가락 점자, 평이한 표현 등 널리 장애인의 정보 취득 및 커뮤니케이션 수단 이용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제1부 전체 연수회

전쟁터의 어린이들에게서 배운 점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의 최신 보고서~

2016년 8월 26일에 개최된 전체 연수회에서는 ‘전쟁터의 어린이들에게서 배운 점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의 최신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프리저널리스트 니시타니 후미카즈(西谷文和) 씨가 강연해 주셨습니다.

강사 본인이 취재한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의 영상을 곁들여 현재 상황을 전해 주셨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사람들의 생활은 비참해집니다. 평화의 소중함을 실감할 수 있었던 귀중한 강연회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현황

나는 매년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하고 있지만, 전쟁이 시작되면 사람들의 생활은 비참해집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5년 반 전에 취재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생활과 환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6명 중 1명이 1살이 되기 전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절반 정도는 글을 읽고 쓰지를 못합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여성은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시리아의 현황

최근 2년 동안 이슬람국가에 대한 공중 폭격이 1만 5천 회를 넘었습니다.

공중 폭격을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터키 등의 선진국이나 이웃 국가들입니다. 일본은 직접 참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은 관계가 없는가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일본도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슬람교라고 하면 무서운 종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왠지 모르게 이슬람 교도는 테러리스트뿐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도 기독교도 모두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테러리스트들은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테러도 싫어하며 전쟁도 몹시 싫어합니다.

제2부 분과회

제2부에서는 ①도우와(同和) 문제, ②여성 인권, ③장애인 인권, ④외국인 인권, ⑤어린이 인권의 5개 분과회로 나누어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도우와(同和) 문제 분과회에서는 ‘사카이 시의 도우와(同和) 문제 현황에 대하여’, 여성 인권 분과회에서는 ‘사카이 세이프 시티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장애인 인권 분과회에서는 ‘장애인 차별 해소에 대하여 ~합리적 배려의 방식에 대하여~’, 외국인 인권 분과회에서는 ‘이웃에 사는 외국인의 현황 ~이웃으로서 함께 도우면서 살기 위해~’, 어린이 인권 분과회에서는 ‘이건 학대일까?’라는 제목으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우와(同和) 문제 분과회



어린이 인권 분과회



여성 인권 분과회



장애인 인권 분과회



외국인 인권 분과회

인권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에서 '아는 듯하면서도, 잘 모르는 나라, 몽골'

2016년 12월 10일, '인권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인터 유스 사카이(통칭:IYS)에서 해외파견사업(스터디 투어)의 파견처 '몽골'에서 배운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2016년도 해외파견사업(파견처:몽골)

일 정 2016년 8월 10일(수)~8월 20일(토)

활동 보고

■ '몽골'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국토 면적은 일본의 약 4배. 총인구는 오사카부의 약 3분의 1. 수도는 울란바타르입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는 '웅대한 대초원의 풍경', '가축과 함께 생활하는 유목민', '이동식 주거 켈' 정도 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한 후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현재의 몽골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 현재 몽골의 상황은....

울란바타르에 도착한 우리는 고층빌딩이나 유럽풍의 주택, 아파트가 늘어난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동 중에 볼 수 있었던 것이라면 곳곳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 건설 중인 고층빌딩, 그리고 시야를 가리는 스모그 등 급속한 근대화를 상징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몽골의 총인구 약 300만 명 가운데 약 절반의 사람들이 이 울란바타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의 이면에는 인프라 정비의 지연, 환경 파괴의 진행, 민중들 사이에 퍼지는 경제적 격차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만 교외로 나가보면 유목생활을 그만두고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몰려온 사람들이 힘든 생활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으로 가 보면 이미지 그대로의 대초원이 펼쳐지면서, 거기에는 유목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삶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대자연 속에서 전통 문화를 지키면서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지만, 거기에도 근대화와 자본주의화에 의한 영향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 자연환경의 복원과 보호 활동

몽골에는 타키라 불리는 고유종의 야생마가 있었지만, 개척 등의 생육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는 멸종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생육 지역이었던 호스타이에서는 자연환경을 복원하여 해외에 대여해 준 타키를 되찾아 야생화시키는 일에 성공. 야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들과의 교류 ①

지방도시인 세르젤렌 마을에서 지역이나 유목민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동안 우리가 느낀 점은 학교 안의 쓰레기였습니다. 몽골뿐만 아니라 자연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오던 사람들은 대지를 숭배하고 자연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주 생활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해결하고, 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자연으로 돌려주는 것이 다음 대지의 은혜로 이어져 갑니다. 그러나 근대화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은 쓰레기에 불과하며 환경 파괴로도 이어집니다. 자본주의로 인한 상품들로 생활은 편해졌지만 그에 동반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쓰레기의 위험성에 대해 그림 연극을 통해 전하고, 함께 쓰레기 줍기를 실시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금방 가득 차는 모습을 즐기면서 아이들은 쓰레기 줍기를 실천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들과의 교류 ②

우리는 실제로 유목민의 이동식 주거인 '켈'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지켜 보는 앞에서 양을 잡아 그 고기를 요리해 우리들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먹기 위해 잡는 양에게는 고통을 주지 않고 신속하게 잡고, 숭배하는 대지를 더럽히지 않도록 피 한 방울도 흘려 넘치지 않도록 양을 잡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을 섭취한다'는 사실. 이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든 값진 경험이었습니.

■ 인터 유스 사카이가 추구하는 목표

저희들 '인터 유스 사카이'는 해외교류와 국제공헌에서의 배움과 체험을 통해 세계화가 진행되는 현대사회에서의 상호이해를 촉진해 나갑니다. 또한 귀국 후에도 현지에서 배운 것을 주위에 소개하여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도시 조성에 기여합니다.



회장 카나마루 나오히로

인권협 활동에 꼭 참가해 주세요!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약칭:인권협]란?

인권협은, 부락(部落) 차별을 비롯한 일체의 차별이 없는 밝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1979년 7월에 발족한 시민조직입니다. 다양한 인권계발(啓發) 활동을 통해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는 평화롭고도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권 풀뿌리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맹하고 있는 단체와 부회

인터 유스 사카이
사카이시 교육회
사카이시 갱생보호여성회
사카이시 어린이회 육성협의회
사카이시 재일외국인 교육연구회
사카이시 자치연합협의회
사카이시 사회교육위원회의
사카이시 여성단체협의회
사카이시 사립 유치원연합회
특정비영리 활동법인 사카이 장애인단체연합회
사카이시 청소년 지도원 연락협의회
사카이시 인권교육연구회
사카이시 농업협동조합
사카이시 학부모 교사 연합(PTA) 협의회
사카이시 보육회
일반재단법인 사카이시 모자·과부 복지회
특정비영리 활동법인 사카이 민간 교육보육시설 연맹
사카이시 민생위원 아동위원 연합회
사카이 상공회의소
사카이시립 교원장회
일반사단법인 사카이시 노인클럽연합회
사카이 인권옹호위원회의 사카이시 지구위원회
사카이지구 행정상담위원회
사카이시 보호사회 연락협의회
사회복지법인 사카이시 사회복지협의회
일반사단법인 오사카부 전수학교 각종학교 연합회
자유 도우와(同和)회 오사카부 본부 사카이지부
제4학구 8지구 공립학교장회
주식회사 UR 커뮤니티 서일본 지사 센보쿠 주거센터
부락(部落) 해방동맹 오사카부 연합회 사카이지부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기업부회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종교부회

인권협 임원을 소개합니다

회 장 카나마루 나오히로 (인권협 기업부회)
부회장 쿠보 테루오 (사카이시 자치연합협의회)
부회장 야마구치 노리코 (사카이시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스가와라 노부미쓰 (사카이시 학부모 교사 연합(PTA) 협의회)
부회장 시라모토 타다시 (사카이시 보육회)
부회장 카사이 야스시 (사카이시립 교원장회)
부회장 나카가와 타카유키 (부락(部落) 해방동맹 오사카부 연합회 사카이지부)
부회장 요시무라 세이지 (인권협 종교부회)
회 계 시바타 아즈코 (사카이시 갱생보호여성회)
회 계 오구라 미즈코 (사카이 인권옹호위원회의 사카이시 지구위원회)



주민 축제



전체 연수회



인권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인권주간 가두계발(街頭啓發)